

이웃들에 행복한 문화 처방합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문화약방'의 장경이·위명화·류옥희·문화영(왼쪽부터)씨가 '문화약방'의 거점이 될 예술공간 '집'에서 포즈를 취했다.

2018 주목! 이 사람

<4> 문화프로그램 기획 '문화약방'

“처음엔 ‘웬 병원을 견학해?’ 의아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병원이 아닌 갤러리 문화공간이었다. 농부화가 김순복 여사의 작품을 보고는 감탄지 않을 수 없었다. 삭막한 도시 안에 그림을 감상하며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있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 아름다운 문화공간을 마련한 분에게 감사 드린다.”

74세 나연주 할아버지가 동창회원들과 지난해 문화공간 '김내과'(광주시 동구 대인동)에 다녀와 쓴 글이다. 나할아버지가 소속된 동창회는 '수요일 N 문화마중'이다. 회원들은 문화 기획 그룹 '문화약방'이 진행한 '청의예술학교 재미마중 노리학교' 정촌반에서 만났다. 과정은 끝났지만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자체적으로 '예술동창회'를 꾸리고 한 달에 한 번 수요일에 만난다. 이날은 회원들의 표현에 따르면 '평민에서 문화인'이 되는 날이다.

지난 2014년 첫발을 땀 '문화약방'은 '미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룹이다. 구성원은 전남대 미술학과에서 공예를 전공한 위명화(50), 전남대 한국화 전공 장경이(50), 조선대 서양화 전공 문화영(41), 조선대 섬유예술 전공 류옥희(54), 전남대 미술교육과 출신 이수경(42) 씨 등 5명으로 모두 미술을 전공했다. 요즘 지역 문화계에서 30대 젊은 문화기획자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40~50대 기획자 그룹이 반갑다.

이들은 지난 2013년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사 교육에서 처음 만났다. 과정을 마친 후 뜻있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모여 공부를 진행했고, '문화예술로 치유하자'는 모토를 걸고 '문화약방'을 꾸렸다.

“흔히 소외 계층이라고 하면 경제적 의미만을 따지는데 문화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들에게 문화 예술을 알리고 싶었죠. 성인 대상, 그중에서도 회사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

40~50대 5명 2014년부터 활동

미술 중심 예술 교육 프로 운영

전시회 관람하고 문화공간 찾고

노인 대상 '재미마중 노리학교' 인기

었는데 초창기에는 여의치 않았어요.”(위명화)

고민하던 차 자주 다니던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도서관에서 우연찮게 '청의예술학교' 이야기를 듣게 된 구성원들은 가족과 노인 세대에 주목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아이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 데려오는 엄마와 조부모 등 3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가족반'을 꾸리고 시니어가 참여하는 '정촌반'을 만들었다. '미술과 더불어 사람들과 함께 놀이하며 새로운 삶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즐거운 학교'가 바로 '재미마중 노리학교'의 출발이다.

'재미마중 노리학교'는 '문화예술로 광주를 들여다 본다'는 컨셉으로 문화예술이 숨쉬는 공간을 직접 탐방한 후 스케치를 해보고 글도 써보는 프로그램이 특징이다. 또 전래놀이와 미술표현을 접하고 현대 미술작가의 작품으로 놀이를 하는 등 문화예술이 건네준 놀이에 빠져 보는 것도 주 프로그램이다.

특히 '정촌반'은 문화약방 구성원들에게 많은 가르침과 감동을 줬다. 왜 노인들을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부르는지 알게 됐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만들기, 그리기 등 기술 위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분들께 향유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봤죠. 문화공간을 찾다니고 거기서 느낀 걸 글로 쓰고 만들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이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면 할수록 많은 것을 느껴요. 기능적인 부분들은 오히려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문화에 일거놓는 분들이 이런 감성을 느끼지 못하네 노년을 보내셨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죠.”

광주 전남에서 열리는 좋은 전시회와 공간을 눈여겨 보고, 참가자들과 함께 탐방하는 프로그램은 인기가 많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발적'으로 동창회가 만들어졌다.

회원들은 광주극장에서 영화 '노무현입니다'를 관람하고 간판 작업실에 들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미술관, 다산미술관 등도 방문했다. 김내과 방문은 회원들이 좋아했던 코스로 예전 '김내과' 시절 방문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황영성 전을 본 김병연 할아버지는 “아이들 그림같은 느낌도 있지만 네모 칸 하나하나에 다 깊은 뜻이 있었다. 학교 다닐 때 암송했던 '서시'를 그림으로 보니 정감이 갔다. 화가를 잘은 모르지만 친구같은 느낌도 들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3년이 지나니 정말 많이 배우고 감동받아요.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도 들죠.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술은 그리는 법, 보는 법을 우리가 가르치고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배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르신들을 보니 젊은 세대들이 받아들이는 것과는 또 다르게 모두 각자만의 방식으로 소화하고 계시더라고요.”(장경이)

류옥희씨와 함께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자서전' 쓰기 사업도 진행중인 위명화씨는 “최근 '노인 파산'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나이 들면 경제적 소외감보다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외로움이 더 크다는 대목이 나온다”며 “프로그램 시작하기 한시간 전부터 와서 대기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며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자 말했다.

문화약방은 올해 사업을 위한 기획이 아닌, 대상자에게 감동을 주고 또 자신들도 감동을 받는 기획을 꾸무고 있다. 주특기인 시니어 프로그램 역시 대상을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떠돌이 생활을 하던 '문화약방'에게 멋진 아지트가 생겼다. 지난해말 문화영씨가 전남 여교 후문 인근에 예술 공간 '집'을 오픈하면서 거점이 마련된 만큼 이곳과 연계해 노인은 물론이고 회사원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글·사진=김미은기자 mekim@

가족뮤지컬 '어른동생' 광주 공연

13일~2월 25일

매주 수~일요일

동구 충장아트홀



송미경 작가의 '어떤아이가'를 뮤지컬로 만든 가족뮤지컬 '어른동생'(사진)이 광주를 찾는다.

13일~2월25일까지 수~일요일 오후 5시,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5시, 일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일요일, 화요일 공연 없음), 광주시 동구 충장아트홀.

'어른동생'은 우리가 늘 바라보던 세상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가치를 판타지적인 요소로 녹여낸 단편 동화로 이뤄져 있는 작품으로, 송미경 작가의 단편동화집 '어떤 아이'에 수록된 단편 '어른동생'이 원작이다.

송미경 작가의 '어떤 아이'는 올해 초 영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독서단체 '북트러스트'의 '올해의 외국도서' 최종 후보작으로도 선정되기도 했다.

'어른동생'은 감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한 '하루'가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다섯 살짜리 남동생 '미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시작한다. 미루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너무나 어른스러운 말투로, 어린애인 척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발견한다.

어른동생의 화자로 동생 미루의 비밀을 알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하루' 역에는 이설·김아영·정해인이, 하루를 벌벌 떨게 만드는 엄청난 비밀을 가진 동생 '미루' 역에는 오현진, 이종현이 출연한다. 하루와 미루의 '엄마' 역에는 송미경·이일진이,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하루와 미루의 외삼촌 '정우' 역에는 남정우·문성수가 등장한다. 티켓가격 4만 원. 문의 062-222-0933. /전문기자 ej6821@kwangju.co.kr

박자은 개인전

12~22일 자미갤러리



▶'채움2'

장독과 다기, 전통 문상 문양... 박자은 작가의 화폭에서 만나는 것들은 보통 서양화 작품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소재들이다.

한국적 아름다움을 조형적 언어로 표현해온 서양화가 박자은 개인전이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광주시 북구 자미갤러리에서 열린다.

추상적 요소와 구상적 요소를 한 화면에 배치하는 그녀의 작품은 흥미롭다.

다양한 형태의 장독을 소재로 한 '채움' 시리즈는 나비가 날아다니기도 하고, 여인 누드 등 등장하기도 한다. '꽃의 향연' 연작은 다양한 화병과 꽃

들의 배치를 통해 다채로운 형상미를 보여준다. 똑같은 장독이 소재지만 '내면의 시' 연작에서는 또 다른 느낌을 만날 수 있다. 흐드러진 꽃들의 질감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소품들도 전시된다.

전남대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한 박자은 그룹 터 회원, 현대미술협회 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지금까지 4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배를 린문화원 초대전, 중국시양박물관회전 등 다양한 단체전에 참여했다.

전시 오픈식은 13일 오후 5시. 문의 062-410-618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청년문화 일자리·문화생태계 조성 사업 추진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올해 청년문화

화실태조사 후속사업으로 광주시 지원을 받아 청년문화 일자리 시범사업과 청년 문화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재단은 지난해 청년문화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억여 원의 예산을 배정해 2가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 문화일자리 시범사업'은 문화 분야 취업

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6개월 동안 광주형 생활임금을 지원(월 200만원 내외)하고 인력수급이 필요한 문화단체에 청년 인력을 배치해 현장실무를 경험하게 하는 사업이다. '청년 문화생태계 조성 사업'은 청년문화를 발굴·육성하는 데 초점을 둔 사업으로, 올해는 광주시민회관을 청년들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공간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1월호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2018은 전라도 정도 천년의 해
전라도 방문의 해

웰컴투전라도
Welcome to Jeolla-do

- 그대에게 전라도를 권함
- 전라도 천년사업, 웅대한 막
전라도 어디까지 가봤니?

신년 기획-먼저 읽는 우울년
2018년 무술년을
상징하는 키워드들

기획-광주올리 다시보기-프로그램
문화자산만들기
광주올리,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노중호의 꿈의 여행기
'축가사'가 나올 듯한 풍경
슬로베니아 SLOVENIA

동네 책방에 빠지다-책방발굴기
여행과 문화의 연동편
'도시여행자'

예향 초대석

**'이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
고도원**
"제 인생 화두는 '꿈 너머 꿈'이에요"

취재의 전서
유형 예술품과 진귀한 만남
국립광주박물관,
왕이 사랑한 보물전

공립 미술관의 길을 본다③
문장이 숨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③
눈부름은 시 정신이 산다
신동엽 문학관

해당수신부 공동기획-맛있는 어른여행
대계마을, 울진 평해읍 거길2리
싱싱한 굴 맛, 장흥 납파마을

도시 정체성에
개성을 입다
부산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트렌드
(따라잡기)
'위로 한 톨, 추억 한 톨'
옛날만화 열풍

백국남의 대중문화 지
연예인 지망생
100만 명 시대

예향이 만난 이 사람
5·18평론 '메이피플' 작가 공성술
KIA타이거즈 안병마님 포수 김민식

문화유산,
전장 지닌 순한 땅
화순 화평
- 색다른 체험여행
- 기원과 평안의 마음
- 맛있고 멋져서 소문난 화순두부